

2024. 1. 5.(금) 석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4년 1월 5일 오전 10: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부서 : 푸른도시여가국 동물보호과

동물보호과장

이미숙

2133-7645

사진없음 사진있음

쪽수 : 8쪽

담당자

윤민

2133-7649

"땡땡아, 글램핑 갈까?" 서울시, 연천에 '반려동물 테마파크' 조성

- 1.5.(금) 서울시-연천군 '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·추모관 조성' 위한 업무협약
- 연천 임진강 유원지 12만 m^2 에 반려동물 동반 캠핑장·수영장·훈련소 등 시설
- 화장장·봉안당 갖춘 '반려동물 추모관'도... 바람직한 반려동물 장묘문화 지원
- 시 "시민에게 반려동물과의 추억 선사, '지역 상생 모범사례'로 자리매김하길"

- 반려동물 양육가구 3백만 시대, 서울시가 경기 연천군 임진강 유원지 부지에 수도권 최대 규모 '반려동물 테마파크'를 조성한다. 반려동물 동반 캠핑장 및 수영장, 대규모 반려견 놀이터, 훈련소 등과 함께 반려동물 장묘 및 추모시설도 마련된다.
- 서울시는 1월 5일(금) 10시 서울시청(8층 간담회장1)에서 연천군과 '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·추모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'을 체결한다고 밝혔다. 테마파크는 올해부터 조성에 들어가 2027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된다.
 - 이번 협약은 지난해 11월,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덕현 연천군수의 면담 당시 연천군 측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성사됐다.

- 현재 서울 시내 반려동물 양육가구는 약 90만 가구(22.2%), 반려동물 수는 114만 7천 마리에 달한다. 5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셈으로, 서울시는 앞으로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만큼 서울 인근에 반려동물과 함께 편안하게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설을 마련키로 했다.
 - 작년 ‘반려동물 동반 여행 실태조사(한국관광공사)’에 따르면 반려인 중 74.4%가 향후 반려견 동반여행 의향이 있지만 반려견 동반이 가능한 숙박시설 부족(55%), 음식점·카페 부족(49.5%), 관광지 부족(42.3%) 등으로 여행에 어려움을 표했다.
 - 현재 수도권 공공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2곳(여주·오산)으로 빠르게 늘고 있는 반려동물 양육가구에 비해 매우 부족하며, 서울을 포함해 경기 북부지역에는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.
- ‘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’는 연천군 군남면 일대 임진강 유원지 부지 약 12만 m^2 에 수도권 최대 규모로 조성되며, 카라반·글램핑·오토캠핑이 가능한 ▲반려동물 동반 캠핑장 ▲반려견 동반 수영장 ▲대규모 반려견 놀이터·훈련소 ▲동물미용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.
- 아울러 시는 반려동물이 늘어나는 만큼 바람직한 반려동물 장례문화 정착 또한 필요하다 보고 테마파크 인근 약 5천 m^2 부지에 ‘반려동물 추모관’도 함께 조성한다.
 - 서울에서는 한해 13만 마리 이상의 반려동물 사체가 발생(서울연구원, ’20년)하며,

- 서울 반려동물 양육가구 중 46.8%가 ‘반려동물 장묘시설’을 이용해 동물 사체를 처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.

※ 반려동물 장묘시설 46.8%, 종량제봉투 처리 13.1%, 매장 등 기타 18.7%('21년 서울시 조사)

- 시는 추모관에 화장장 또는 건조장, 봉안당 등의 시설을 갖춰 시민들이 서울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,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소중한 가족인 반려동물을 아름답게 떠나보낼 수 있게끔 돕는다는 계획이다.

- 동물 장묘시설은 전국에 총 73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, 이 중 공공이 운영하는 곳은 임실에 한 곳뿐이다.

- 5일(금)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연천군은 ▲기반시설 공사 ▲임진강 하천구역 정비 ▲공청회 등을, 서울시는 ▲테마파크 조성·운영 등을 진행, 오는 2027년 개관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된다.

- 이수연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“가족의 일원인 반려동물과 함께 여가문화를 즐기고 싶은 반려동물 양육가구를 위해 공기 맑고 드넓은 연천에 테마파크를 조성키로 했다”며 “시민에게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소중한 추억을 선사할 뿐 아니라 서울시·연천군의 협력이 ‘지역 상생의 모범사례’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”고 말했다.







Q1 **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연천에 조성할 이유는?**

- 최근 대규모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조성(경기도 여주, 오산, 의성, 대전)하였거나, 추진 계획을 발표한 지자체(부산, 인천, 나주 등)들이 많습니다.
- 그러나, 서울의 경우 대규모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부지를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, 경기도 북부 지역에는 현재 반려동물을 양육 중인 시민들이 숙박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테마파크가 부재하여 연천군과 협력하여 아름다운 임진강 유원지 부지에 테마파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.
- 연천은 천혜의 자연이 온전히 보전되어 있는 청정 자연의 도시이며, 임진강과 한탄강이 흐르는 생태계 보고이자 선사유적지와 같이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연천군의 관광산업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서울시민의 좋은 휴식처가 될 것입니다.

Q2 **연천은 서울시민들에게 너무 멀지 않나요?**

- 현재 자동차로 서울 북부권에서 약1시간 10~30분 소요되는 거리이나, '27년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, '30년 서울-양주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1시간 내로 단축이 예상됩니다.
 - ※ 차량 이용 : 62분(노원구청 → 군남면), 87분(은평구청 → 군남면)
 경원선(청량리역 → 연천역) 이용 : 73분
- 또한, 최근 2023년 12월 16일 철도 경원선 복선전철 사업으로 1호선 전곡
 - 연천역이 개통되어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도 높아졌습니다.

Q3 서울 반려동물 추모관 조성을 추진하는 이유는?

- 그간 반려동물의 장례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고, 장묘시설은 전국적으로 턱없이 부족해 사회적 문제가 된 지 오래입니다. 2021년 서울시 동물보호 시민인식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반려동물의 죽음을 경험한 서울시민 중 46.8%가 반려동물 장묘시설을 이용하였으나, 종량제 봉투로 처리하는 경우도 무려 13.1%나 되고, 불법적인 매장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.
- 이는 서울시에는 반려동물 장묘시설이 부재하고, 부담스러운 비용 탓으로 여겨집니다. 또한, 경기도의 26개 동물장묘업 중 경기 북부 지역에 위치해 있는 장묘시설은 6개에 불과하고, 동두천·연천에는 이마저도 부재합니다.
- 현재 많은 지자체들이 공공 동물장묘시설 조성을 추진하였으나, 주민들의 반대로 중단되었으며, 현재 운영 중인 공공 동물장묘시설은 전북 임실 1곳이다. [경기도 여주 1곳(경기도 운영)이 완공되었으며, 추가 개장될 예정] 서울 반려동물 추모관이 조성된다면 경기도 북부 유일의 공공 동물장묘시설이 될 것입니다.

Q4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와 추모관은 어떻게 운영할 예정인가요?

- 업무협약 체결 이후 서울시와 연천군은 조성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성 및 운영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 후 올해 상반기 실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.
- 서울시민들에게는 저렴한 비용에 반려동물과 동반한 휴식과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또 다른 가족인 반려동물을 추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, 연천군민들에게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는 명소가 되도록 할 예정이오니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